2017. 2. 6

Market behavior 엿보기

eBEST EDGE

Strategy
양해정
02. 3779-0151
hjyang@ebestsec.co.kr

4분기 실적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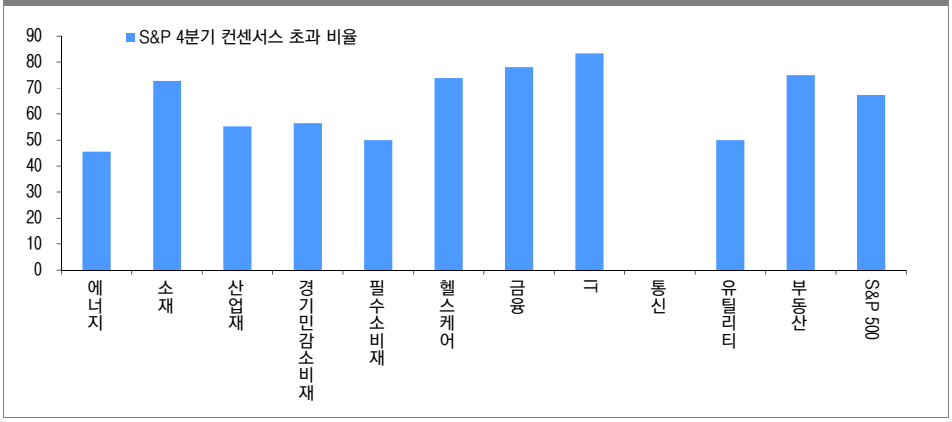
Investment Edge

최근 주요기업 4분기 실적은 '와!'는 아니지만 '어! 이정도 수준이면'으로 정리 할 수 있을 거 같다. 16년 분기실적은 매번 서프라이즈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다. 기업이익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뢰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업종에서 IT, 화학은 가장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S&P 기업들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면 IT, 소재 업종은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금융도 나쁘지 않다. 은행은 한국시장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상반기에도 은행 업종 이익은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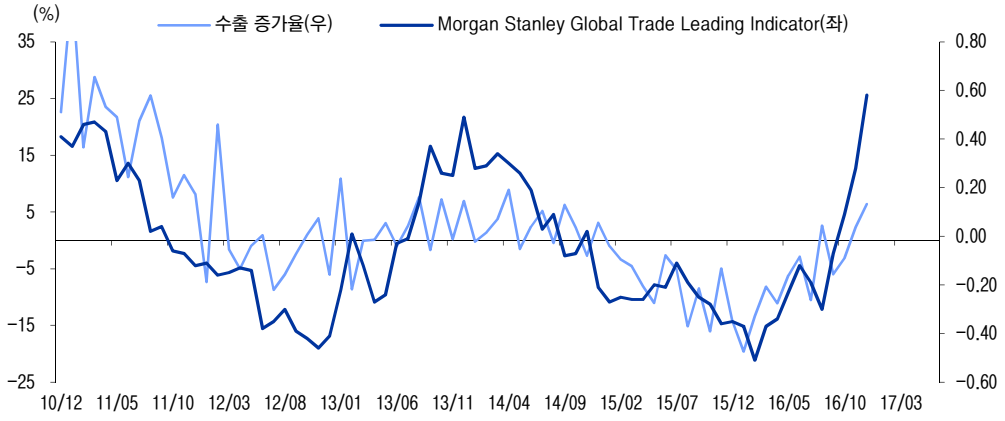
4분기 실적에서 보듯이 수출관련 업종 중심 이익흐름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비슷한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경기회복,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부진했던 수출과 비교해 수출 회복은 상반기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수 지표 부진에서 예견됐듯이 기업별로 내수관련 이익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장품만 하더라도 내수가 부진). 정치적 안정이 생긴다면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기업이익에서 중요한 것은 모멘텀(증가율)의 크기가 아닌 100조원 수준의 이익을 유지하는가 여부다. 그래야 PER도 신뢰가 생긴다.

글로벌리 IT와 소재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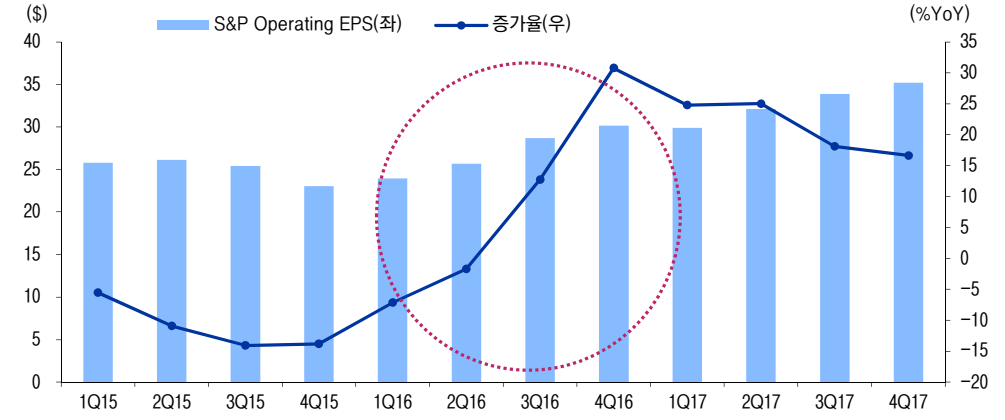
자료: S&P,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글로벌 무역 선행지수와 한국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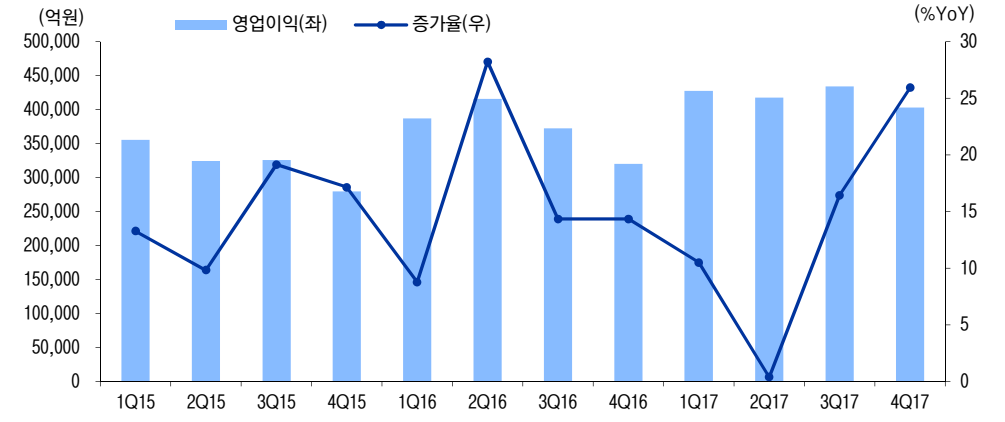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시장 강세는 기업이익 증가율 회복 영향도 크다



자료: S&P,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올해는 좀 더 안정된 이익을 보여줄 것인가



자료: Quantiwis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양해정)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